

## 삼교(三敎)에 나타난 이상향의 이해

Understanding Utopia through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김지엽(홍해광고 교사)

### I. 서론

### II. 삼교의 이상향

1. 유교의 대동세계
2. 불교의 정토사상
3. 도교의 무릉도원

### III. 이상향의 이해

1. 시간으로서의 이상향
2. 공간으로서의 이상향
3. 인간으로서의 이상향

### IV. 결론

- 참고문헌
- 영문초록

## Abstract

### Understanding utopia through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Kim, ji-yup

The concept of utopia was adopted by Thomas More(1478~1535) and it contains the dual meaning of the place which is existing 'no-where' in the world and the 'good-place', at the same time. It means, 'the place which is better, which is not existing in the world yet' People dream of the utopia eventually as they face the subjectified and objectified troubles and the pain in reality. But the only time that we can live and enjoy is just 'today' and the present time.

Therefore, though the utopia may be achieve presently, the present time is just the present time always, eternal satisfaction doesn't exist through fulfillment of the external conditions only. This thesis is dealing with general view of the utopia that is shown through the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that are the main axle of oriental philosophy and religion and studied utopia through the three views; time, space and human. As the people are the beings eventually controlled by the time and the space, it is necessary for us to have the understanding about the utopia on this view point.

#### 1. The philosophy of Tae Dong(大同思想)

The era of Yo Soon(堯舜時代) is the ideal and perfect society in China which is the ideal of the Confucianism. And there's no way of knowing whether it was existing in reality or not, or they were just dreaming of. Generally speaking, people live in unrest and fright in history. Therefore, in the Confucianism the people who are in trouble

and agony, the ones who are searching for the new things lamenting about the reality as the desirable model people generally.

The philosophy of Tae Dong is started with the philosophical basis and they defined ideal society as fair, peaceful, full of morality, they called that society as the Tae Dong.

This is not the unique philosophy of confucianism but it is the comprehensive ideals of various philosophical families in Seon Jin era.(先秦時代)

## 2. The Jeong Toh Philosophy(淨土思想) of Buddhism

In Buddhism, there are various Buddhas, there are various countries where Buddhas are living. And the Jeong Toh(淨土) is the place where the most representative Buddhas are living. The environment is described as the scenery is always beautiful, the weather is so comfortable in that place. The food is so abundant, clothes are so affluent, the housings are so nice, there' s no hunger and painfulness of mankind. But the orthodox Buddhists insist that there' s no world existing in any place. Master monk Seong Chul said, "My mind is Buddha and my reality is the paradise, there' s no other paradise existing, the theory of paradise of Seobang Jeong Toh(西方淨土) is the means to lead the ignorant general people to the correct path of life and they are all lies to be accurate."

## 3. The utopia in Taoism

Taoism takes the Sutra of Moral(道德經) as their utmost scripture and takes Noh Jah(老子) as the source of their philosophy, they are deeply related to the philosophy of Taoist philosophy. The description about the ideal nation in the 80th chapter of Sutra of Moral(道德經); "It' s a small country with small population" We need to notice Towhawonki(桃花源記) written by Toh Yon Myung(陶淵明) which

was influenced by Taoism. His writing influenced many oriental writers and painters so deeply because it is describing the utopia in people's hearts so well. Since it was written, the term Mooreung Doh Won(武陵桃源) is the most frequently used for depicting the utopia.

#### 4. The relationship between utopia and the mankind

The main figure of the world and the history is the absolutely the mankind. But the utopia we have studied through the three religions above we can notice they are focusing on the environment or space. When they are describing the utopia, the main figure usually meets a beauty and gets married, in some cases the main figure meet a great teacher, gets the supernatural power or gifts. He stays there for the time being, later he thinks about his hometown and returns to hometown. And he tries to return to the place but can not find it out again. But usually they are not dealing with the character of the people living in that utopia.

If people dream of the utopia, it means the country they are living now lacks something or it is the unstable country apparently. If people are satisfied with the environment that they are living in, they will not have the vainful dreams. It is the thought of the corrupted Adam and it is quite against the thoughts in the Bible. As the scripture is saying, "Let us make man according to our image and likeness.;" man was created according to the purpose and the need of God totally. Therefore, man can not have his own will but he should accomplish God's will solely and fundamentally. When a man makes something, the purpose and the usage are totally depended on the person who makes it. We should understand this fact clearly. God rested deeply after He created man. God blessed the day and made it holy.

In spite of the fact, if a man wants to become an angel, denying his own existence, not to be satisfied with his own life, and dream about

something vainful, it is violating the sabbath. Such people create such society and such world. The thieves make the den

of the thieves, the drug addicts make the den of the drug addicts. Therefore, even the environment may be perfect in time and space, the world becomes empty if there's no character. If there's the character everything turns different. Jesus' disciples said to Jesus, "Lord, to whom shall we go? You have the words of eternal life," it was the condensed expression of their whole life. As if Jesus lived for God, through God, if we live for and through the Lord by eating and drinking the Lord Himself. This is the true entity of the utopia and paradise.

## I. 서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거나 듣는 말 가운데 ‘테크노피아’, ‘에코토피아’, ‘크레디피아’ 등등 ‘피아(-pia)’가 붙은 합성어들이 많다. 이러한 ‘피아’의 세계는 토머스 모어(Thomas More;1478~1535)의 「유토피아(Utopia)」로부터 비롯되었고, ‘어디에도 없는 곳(no-where)’과 ‘좋은 곳(good-place)’이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sup>1)</sup> 유사한 개념을 가진 용어로서는 이상향(理想鄉), 이상국가(理想國家),仙境(仙境), 선계(仙界), 별천지(別天地), 낙원(樂園), 패러다이스 등이 있는데,<sup>2)</sup> 본고에서는 이상향(理想鄉)을 주로 사용할 것이다.

이상향에 관한 용어의 개념보다 밀바탕이 된 사상을 고려한다면, 이상향의 기원은 가히 인류의 역사와 궤를 같이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류는 주·객관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현실적 고통과 허무 그리고 절망 등으로 인해 부득불 이상향을 꿈꿔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 계열의 작품들은 현실세계와는 동떨어진 세계를 그리기 때문에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현실과 격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실적 조건을 완전히 이탈함으로써 작가는 마음대로 환상의 날개를 펼 수가 있는 것이다.<sup>3)</sup> 그러므로 이런 형편에서 설정된 유토피아는 작가 자신의 바람직한 사회상을 묘사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개인적인 취향이 체계 없이 망라되어 있다.<sup>4)</sup>

---

1) 김영한, 「르네상스의 유토피아 사상」, 서울, 탐구당, 1983. p. 13.

2) 엄밀한 의미에서 동양의 이상향은 미래사회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서양의 유토피아와는 개념상 차이가 있지만, 본고에서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였다.

3) 정병조, 〈반유토피아 소설〉; 「명강의 노트」, 서울, 한국문학사, 1981. p.235.

4) 김영한, 「전계서」, p.24.

또한 여타의 이상향들은 대체로 구비문학의 형태로 전승되다가<sup>9)</sup> 문자로 정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를 집단전승의 결과로 이해하는 편이 합당할 것이나, 어떤 경우에는 아예 작가의 상상력으로 창작되기도 하였다. 이런 예는 동·서양의 문학 작품을 통해 쉽게 발견된다. 플라톤의「국가」, 사무엘 버틀러의「에러폰(Eerwhon)」,<sup>10)</sup> 스위프트의「걸리버 여행기」, 조지 오웰의「동물농장」등이 서양의 그것을 대표한다면, 도 연명의「도화원기(桃花源記)」,「예기(禮記)」의 대동(大同)세계, 불교의 정토(淨土)사상 등은 동양의 대표적인 이상향인 것이다. 물론 우리 나라의 경우, 「홍길동전」에 보이는 ‘울도국(鳥國) 이나,<sup>11)</sup> 이 인로의 ‘청학동기(靑鶴洞記)」<sup>12)</sup> 그리고 제주도에서 전해오는 ‘이어도」<sup>13)</sup>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 
- 5) 가령 아메리카에 구전되어온 ‘엘도라도’나 유럽인들에 전래해온 ‘이틀란티스’가 그것이다.
- 6) 물론 엄밀히 말한다면 이 작품은 반유토피아 소설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제목부터가 대단히 풍자적인데, 유토피아의 뜻이기도 한 ‘이 세상에 없는 곳(Nowhere)’의 철자를 뒤집어 작품 제목으로 삼고 있다. 당시의 종교적 편협, 무비판적 권위의식에 의한 창의성 억압, 시대 조류라 할 수 있는 위선과 허식과 형식주의, 과학 편중의 사고방식이 가져 온 정신 경시의 풍조, 이론을 위한 이론과 궤변을 일삼는 학문 등에 대한 신랄한 풍자가 부각되어 있다.
- 7) 「홍길동전」결말부분에 울도국이 보인다. “길동이 그 형을 이별 후에 재군을 권하여 농업을 힘쓰고, 군법을 일삼으며, 그럭저럭 삼년초토를 지내니, 양식이 넉넉하고 수만 군졸들의 무예와 기보하는 법이 천하에 최강하더라. 근처에 한 나라가 있으니 이름은 울도국(鳥國)이라. 중국을 섬기지 아니하고, 수십 대를 전자전손하여 덕화유행하니,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넉넉하거늘…….”
- 8) 설화에 이상향이라고 전래하던 지리산 청학동을 당형 최상국과 함께 찾아갔지만 마침내 찾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파환집」에 수록되어 전한다.
- 9) 오랜 세월 동안 이 제주도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전설의 섬으로 남쪽 바다 천리밖에도 파도를 뚫고 꿈처럼 하얗게 솟아 있다고 한다. 섬을 보았다는 사람은

한편 어느 곳인가 반드시 존재하리라고 막연히 기대했던 지리적 의미의 유토피아는 17세기 지구탐험으로 사라져 버렸다. 사실상 16~17세기는 유토피아 역사상 가장 큰 전환기로서 르네상스, 종교개혁, 지리상의 발견, 과학혁명, 영국혁명 등의 격동기로서 중세 질서가 붕괴되고 근대 세계가 태동한 시기였다.<sup>10)</sup> 이후 달나라나 혹은 아틀란티스처럼 바다 속 어딘가 존재할 것이라던 이상향마저 과학의 발전으로 허구인 것이 밝혀졌다. 19~20세기는 이보다 더욱 철저하게 유토피아를 매몰시킨 시기였다. '이 세상에서의 한 평이 유토피아에서의 만 평보다 낫다' 고 한 토마스 머콜리의 말처럼, 이제 유토피아는 기껏해야 휴거(携擧)를 믿는 광신도 집단이나 UFO가 출현하는 공상과학에 심취한 독자들의 현실 도피처 정도로 받아들일 뿐이다.<sup>11)</sup> 그러나 그것이 허구며, 조작된 세계임을 알면서도 오늘과 현재에 불만족한 사람들은 여전히 유토피아를 그리고 있다.

본고는 II장에서 동양<sup>12)</sup> 종교와 사상의 중심 축이라 할 수 있는 삼교(三教) 즉, 유교(儒教)·불교(佛敎)·도교(道敎)에 나타난 이상향들을 개괄하고, III장에서는 이들이 제시한 이상향들을 시간·공간·인간의 관

---

이내 그 섬으로 가서 영영 이승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피안의 섬이다.

10) 김 영한, 「전계서」, p.23.

11) 정 진홍, 〈유토피아의 종말〉; 《조선일보》, 2000년 6월 10일자.

12) 이 말은 일반적으로 한국, 중국, 일본 등 근대화 이전에 중국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지역을 가리킨다. 그러나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동양이란 메소포타미아(아랍) 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개념이다. 그리고 그 범위를 한껏 넓혀 보아도 인도 문화권 정도를 포함할 뿐이다. 그러므로 서양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동양'이라는 말에는 중국(유교 혹은 한자)문화권을 가리키는 예를 찾아보기란 매우 힘들다. (김 중문, 장 윤수, 「한국전통철학사상」, 부산, 소강, 1997, pp.10~11.; 장 윤수, 〈기독교세계관의 입장에서 바라본 기론〉, 「통합연구」32호, 서울, 통합연구학회, 1997, p.13. 에서 재인용) 그러므로 이 용어에 관한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본고에서는 중국, 한국, 일본 등 한자 문화권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점에서 분석할 것이다.

## II. 삼교(三敎)에 나타난 이상향

동양에서 철학적 흐름의 가장 큰 동력은 무엇보다도 삼교(三敎) 사상이었다. 이것은 삼교의 상호관계를 탁월한 견해로 피력한 최 치원의 난랑비서(鸞郎碑序)를<sup>13)</sup> 보아도 잘 나타난다. 이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서로 상치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동양인들의 핵심적 사유구조를 이루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어느 쪽에서 더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를 분명하게 정의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관계성 속에 놓여 있다.<sup>14)</sup> 본 장에서는 이들이 지향하는 이상향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동양인들의 유토피아 관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 1. 유교의 대동세계

유교에서 말하는 이상적이고 완전한 사회인 요순시대(堯舜時代)가 실제로 있던 것인지, 아니면 바람직한 사회상의 설정이었던 것인지는 지금으로서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예기」예운편에 기록된 평등하고 도덕적이며 평화로운 이상사회를 통해 이상향의 면모를 살펴보기로 한다.

13) 최 치원의 견해를 요약한다면, 유교는 충효를 문제삼으며 백성들을 접촉하여 교화하려는 사상이요, 불교는 화복(禍福)을 문제삼아 중생을 선행으로 인도하는 사상이고, 도교는 무위(無爲)에 처하여 불언(不言)의 가르침을 행하는 사상이라고 하였다. (『三國史記』卷四 新羅本紀 眞興王 三十七年條)

14) 송 향용, <한국 도교·도가사상의 특질>; 조 명기 외, 『한국사상의 심층』, 서울, 우석, 1994. p. 420.

대도(大道)가 행해지면 천하에 공의(公義)가 나타난다. 어진 사람을 지도자로 뽑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관직을 주고 신의와 화목을 가르치게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부모만 부모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식만 자식으로 여기지 않게 된다. 노인도 하여금 편안한 여생을 보내게 하고, 장년은 일할 여건을 보장받고, 어린이는 길러주는 사람이 있고, 과부나 홀아비는 돌봐주며 병든 자도 모두 부양을 받는다. 남자와 여자는 각기 할 일이 있으며, 재화가 버려지는 것은 싫어하지만 개인적으로 축재할 필요가 없다. 스스로 노동을 싫어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자기만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음모도 생기지 않고, 도적이거나 난적도 발생하지 않는다. 집집마다 바깥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 이를 대동(大同)이라고 한다.<sup>15)</sup>

이상의 진술을 참고할 때, 대동세계는 다음의 몇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먼저 '천하에 공의를 실현한다'는 원칙 아래, 재산 공유를 경제적 기초로 삼고 있다. 이것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리고 성별과 연령 사회의 수요에 따라 분업을 하는데, 어린이나 노약자에 대한 배려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현자를 지도자로 뽑고 능력 있는 자에게 관직을 줌으로써 구성원들이 단결하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인데, 그 바탕은 도적이거나 전쟁이 없는 태평한 생활을 전제로 한다. 이와 같은 특징들을 총괄해 본다면, 이것은 고대인들의 이상사회에 대한 소망을 집대성한 것으로 보인다. 허나 유교만의 독특한 사상이라기보다 선진(先秦)시대 각 학파의 사회이상이

---

15) 보다 자세한 것은 다음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大道之行也，與三代之英丘未之逮也，而  
有志焉。大道之行也，天下爲公，選賢與能，講信，修睦。故人不獨親其親，不獨子其子，  
使老有所終，壯有所用，幼有所長，矜寡孤獨廢疾者皆有所養。男有分，女有歸。貨惡其  
於地也不必藏於己，力惡其不出於身也，不必爲己。是故謀閉而不興，盜竊亂賊而不  
作，故外戶而不閉，是謂大同。(「禮記」)

종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16)</sup>

인간의 도덕적 완성을 강조하는 대동사상은 중국사 2000여 년간 계속해서 계승되었을 뿐더러 주변국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sup>17)</sup> 특히 근대화 격변기에 Kang Yuwei(康有爲)는 대동세계를 사회개량의 최종 목표로 인식하여「대동서」저술의 입론으로 삼았고, 혁명의 선구자 쑨 윈(孫文)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싹을 여기서 발견하여 혁명의 목표를 ‘천하 위공(天下爲公)’의 낙자로 표현했다.

## 2. 불교의 정토사상

불교에는 여러 종류의 부처가 등장하듯,<sup>18)</sup> 부처가 사는 나라도 여러 가지다. 가령 아미타불이 주재하는 서방(西方) 극락세계인 정토(淨土)가 있고, 먼 훗날 미륵불이 출현할 용화세계도 있다. 그런가 하면 비로자나불의 공덕으로 장엄한 나라 연화장 세계가 있고, 석가모니불이 교화한 영산 회상도 있다. 약사여래의 유리광 세계와 보생여래의 환희 세계 또

16) 이는 도가나 묵가(墨家)에서 시작되어 유가(儒家)에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령 천하에 대도(大道)를 구현한다는 표현이나, ‘대도가 쇠퇴하여 인과 의가 생겨났다’는 주장은 술어 자체가 도교 용어를 채택하였고, 나아가 ‘자기 어버이만 어버이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식만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구절은, ‘모두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이롭게 돕는다’는 묵가의 특색이 잘 드러나고 있다.(진 정영·임 기담; 이성규 역, 『중국의 유토피아 사상』, 서울, 지식산업사, 1999. p.128.)

17) 조선 중기 이후에 시행되었던 대동법(大同法)이나, 한 씨족의 모든 파보를 한데 모은 대동보(大同譜) 등은 바로 여기에서 기원한 용어이다. 또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궁극적 지향점이었던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잘 사는 대동세상’도 좋은 예가 될 것이다.

18) 이렇게 된 이유는 중생의 고난이 그만큼 복잡하고 많음으로 그들을 구체적으로 구제하려 했던 방편이었다.(홍 윤식, 『韓國史上에 있어서 彌勒信仰과 그 사상적 구조』; 『미륵사상의 본질과 전개』, 서울, 서문문화사, 1994. p.75.)

한 불국(佛國)에 해당된다.<sup>19)</sup> 경주에 있는 불국사도<sup>20)</sup> 사실상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부처들이 산다는 정토다. 정토(淨土)란 ‘부처님의 나라’ 즉 깨달은 자들의 나라며 정복(淨福)의 영원한 이상향이다. 불계(佛界), 불국(佛國), 불찰(佛刹)로도 쓰이는데,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세계인 예토(穢土)와 상대적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불교 사상사에서 이 정토는 앞으로 갈 정토인 ‘내세정토(來世淨土)’와 지금 이룩하는 정토인 ‘정불국토(淨佛國土)’, 이미 있는 정토의 ‘상적광토(常寂光土)’의 삼종류로 대별된다.<sup>21)</sup> 따라서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토(穢土)를 벗어나 청정한 국토에 태어나야겠다는 소원을 가졌던 것이다. 그러나 초기불교에서는 정토의 명칭이나 개념이 매우 다양하게 이해되었는데, 후대에 이르러 특히 중국과 한국, 일본 등에서 아미타신앙의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자 정토라고 하면 으레 아미타불의 정토를 말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특히「정토삼부경(淨土三部經)」은 아미타불의 정토를 설명한 경전을 묶은 것인데,<sup>22)</sup> 여기서는 〈불설무량수경〉을<sup>23)</sup> 인용해 보자.

부처가 아난에게 말하였다. 범장보살이 이미 성불하여 현재 서방에 있는데, 그곳은 여기서 십만 억찰 떨어져 있다. 그 세계를 안락(安樂)이라 한다……그 불국의 땅은 자연의 칠보·금·은·산호·호박·마노의 합성으로

---

19) 김 상현 외, 「불국사」, 서울, 대원사, 1992. p.8.

20) 원래 명칭은 화엄불국사(華嚴佛國寺)다. 화엄의 세계는 비로자나불의 세계로서 온갖 꽃으로 장엄된 세계이다.

21) 김 용옥, 「금강경 강해」, 서울, 통나무, 1999. p.241.

22) 석존이 교설한 〈무량수경〉이라는 의미의 불설무량수경(佛說無量壽經)과, 아미타불의 모습을 관상하는 법을 설명한 불설관무량수불경(佛說觀無量壽佛經), 그리고 극락정토를 찬탄한 아미타경(阿彌陀經)을 말한다.

이루어졌다. 규모는 탕탕하고 넓게 되어 끝을 알 수 없지만, 모두가 서로 섞여 순서대로 천천히 들어간다. 찬란하고 미묘한 빛을 발하고 기이한 아름다움이 가득하다……그 불국토(佛國土)에는 수미산 및 금강원 등의 여러 산이 일체 없고 바다도 없다. 부처의神通력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보이는데, 지옥과 아귀, 축생들이 갖가지 고통을 받는 것들은 없다. 춘하추동의 사계절 변화가 없으므로 춥지도 덥지도 않고 항상 조화롭고 쾌적하다.

정토의 환경은 위의 묘사와 같이 항상 아름답고 기후도 사람 살기에 적당한 것으로 설정되었다. 물론 온갖 맛있는 음식이 가득하고, 집도 마음에 맞고, 굶주림도 없으며, 온갖 악이나 중생의 고통도 없는 ‘안락’과 ‘극락’의 세계로 제시된 것이다.<sup>23)</sup> 그러나 정통 불교신자들은 극락도 선계도 이상향도 따로 없다고 하며, 이 사상을 대승불교의 산물로 이해하고 있다.<sup>24)</sup> 성철 스님은 내 마음이 부처요 현실 이대교가 극락세계지 따로 극락 같은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극락이나 정토는 무지한 중생들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수단 곧 방편(方便)으로서 엄격히 말하자면 거짓말이라고 하였다.<sup>25)</sup>

### 3. 도교의 무릉도원

23) 한역되는 과정에서 「불설무량수경」으로 불리었지만, 원제목은 「극락세계」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극락세계의 건립과 장엄, 극락에 살고 있는 중생들, 극락에 왕생하는 이들과 어떻게 극락 왕생할 수 있는지를 상세하게 해설하고 있다.

24) 〈불설무량수경〉의 번역문이나 정토에 관한 진술들은 주로 진정염·임기담의 「전계서」 pp.267~270를 의지하였다.

25) 원시 형태의 불교는 소승(小乘)으로 불리었다. 이들은 도덕적인 금욕주의와 명상적 신비주의에 몰입한 반면, 대승(大乘)은 소승의 실제적 금욕주의보다 정서적이고, 화려하고, 비현실적인 측면이 강하다.

26) 백련선서간행회 편, 「영원한 자유」, 서울, 장경각, 불기2537. pp.38-44.

도교는<sup>27)</sup> 원래 노장사상(老莊思想)과는 별개의 기반 위에서 출발하여 추구하는 향방과 목적도 다르므로 근본적으로 함께 할 동질의 사상이 아니었다.<sup>28)</sup> 이 말은 노장사상이 현실적이고 개인적이며 유파(流波)가 없는 철학인데 비해서, 도교는 궁극적으로 신선이 되기 위한 방법론을 수행하는<sup>29)</sup> 일종의 체계화된 종교라는 말이기도 하다. 하지만 도교가「도덕경」을 최상의 경전으로 삼고, 사상적 연원으로서 노자를 교조(教祖)로 섬긴다는 점에서 노장사상과는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sup>30)</sup> 따라서 도교의 이상향을 살필 때, 마땅히「도덕경」에 나타나는 이른바 ‘나라는 작고 백성이 적은’ 소국과민(小國寡民)을<sup>31)</sup> 살피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

27) 도교는 태평도와 오두미교가 원류이다. 전자는 후한때 우길이란 자가 창도하였는데, 나중에 장각이 신도를 규합하여 이른바 황건적의 난이라는 무장봉기를 일으킨 것으로 유명하다. 오두미교는 장롱이란 자가 종교화 하였고 손자인 장로가 조직을 정비해 나중에 천사도로 개칭하였다. 이들의 사상 전개 과정을 보면 고대 민간신앙을 기반으로 한 신선설을 그 중심에 두고 도가, 역리, 음양오행, 참위, 의술, 점복 등의 이론과 무속적인 신앙을 보했으며 불교의 체제와 조직을 흉내낸 것이다. (차주환, 「한국도교사상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3. p.24~26)

28) 송 함용, 「전계서」, pp.26~29.

29) 도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심제(心齊)와 전일(傳一)과 좌망(坐忘)을 들고 있다. 심제는 마음을 비우고 깨끗하게 가다듬는 것을 말하며, 전일은 마음을 온전히 하고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는 것을 말하며, 좌망은 일체의 물아(物我)와 시비(是非)의 차별(差別)을 잊어버리려는 정신적 수련을 말한다. (이 강수, 「도가사상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9. p.111.)

30) 장 양수, (한국 이상향 설화에 나타난 도교사상); 「인문연구논집」 제4집, 부산, 동의대학교출판부, 1999. p.25.

31) 이것은「도덕경」, 80장에 나타난 노자의 이상 사회다. 다음의 의역을 참고하라. (나라는 작고 백성이 적어서, 다른 사람의 열 배나 백 배의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어도 쓰지 못하게 한다. 백성들이 저마다 삶을 아끼고 멀리 떠돌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비록 배나 수레가 있어도 타고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무기가 있다 해도 쓸 필요가 없게 한다. 백성들로 하여금 옛날로 돌아가 (문자를 버리고) 새끼줄을 묶어 뜻을 표

그러나 이보다는 진(晉)나라 때, 노장사상과 도교사상의 영향을 두루 받아 지어진 도 연명(372~427)의 「도화원기(桃花源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은 농경민들의 소박한 꿈과 이상을 잘 집약시킴으로서 무릉도원(武陵桃源)이라는 동양적 유토피아의 대명사를 탄생시켰고, 후대의 소인묵객(騷人墨客)들에게 크나큰 감흥을 주었기 때문이다.<sup>32)</sup> 그 전문은 아래와 같다.

진나라 태원 연간에 고기잡이를 하는 무릉의 어떤 사람이 계곡을 따라가다 길을 잃고 말았는데 홀연히 복숭아 꽃 만발한 숲을 만났다. 물가의 양편 수 백 보 안에 다른 나무는 없었고, 향기로운 풀은 아름답게 자라고 떨어진 꽃잎은 어지럽게 날리고 있었다. 어부는 대단히 신기하여 다시 앞으로 나가 보니 숲이 끝났고 물줄기도 사라진 곳에 문득 산이 나타났다. 산에는 작은 입구가 있었는데, 마치 광선이 비치는 것 같았다. 그는 배를 버리고 그 입구로 들어갔다. 처음에는 극히 좁아서 겨우 사람이 통행할 정도였다. 다시 수십 보를 들어가자 넓고 탁 트인 곳이 보였다. 그곳의 토지는 평탄하고 넓었으며, 집들이 정연하게 들어서 있고 좋은 밭과 아름다운 연못, 뽕나무와 대나무가 많았으며 도로가 교차하고 개와 닭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 사이를 왕래하며 농사짓는 남녀의 의복은 바깥세상의 그것과 똑같았고, 노란 더벅머리를 늘어뜨리고 조용히 스스로 즐기는 것 같았다. 그들은 어부를 보자 크게 놀라며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다. 그가 낱알이 대담하자, 그들은 어부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술을 내어놓고 닭을 잡아 대접하였다. 이 사람이 왔

---

현하도록 하며, 그 음식을 달게 여기고, 그 옷을 아름답게 여기며, 그 풍속을 즐겁게 여기도록 해야 한다. 이웃나라가 서로 바라보이고 닭 우는소리와 개 짖는 소리를 들을 수는 있어도 죽을 때까지 서로 왕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2) 이것의 아류는 부기지수다. 왕안석의 〈도원행(桃源行)〉과 한유의 〈도원도(桃源圖)〉가 유명하고, 우리 나라의 이인로의 〈청학동기(靑鶴洞記)〉가 많이 알려져 있다.

다는 것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모두 찾아와 바깥 세상의 일을 물었다. 그들은 자기네 조상들이 진(秦)나라의 난리를 피하여 처자와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이 절경으로 들어와 다시 나가지 않았기에 외부와 차단되었다고 말하며 지금이 어떤 세상이나고 물었다. 그들은 한(漢)나라는 물론 위(魏), 진(晉)도 몰랐다. 어부가 일일이 그것을 말해주자 모두 탄식하였다. 나머지 사람들도 모두 그를 집으로 초대하여 술과 음식을 내놓았다. 이렇게 수일을 머문 뒤 그가 작별하여 떠나려 할 때, 그들은 바깥사람들에게 말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어부는 밖으로 나와 그 배를 타고 길을 찾아 나오면서 곳곳에 표지를 남겼다. 그는 군의 관아에 이르러 태수를 찾아가 그 일을 말하였다. 태수는 즉시 사람을 파견하여 그가 갔던 곳을 따라 표지를 찾았으나 헤매며 끝내 찾지 못하였다. 남양의 유 자기는 고결한 은사였다. 그 말을 듣고 기꺼이 찾아 나섰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병들어 죽었다. 그 후 그 길을 찾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sup>33)</sup>

### Ⅲ. 이상향의 이해

이상과 같이 묘사된 이상향은 삼교가 각각 독특한 면을 보이고 있지만

33)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원문을 참고하시오. 晉太元中, 武陵人捕魚爲業. 緣溪行, 忘路之遠近, 忽逢桃花林. 夾岸數百步, 中無雜樹, 芳草鮮美, 落英繽紛. 魚人甚異之. 復前行, 欲窮其林. 林盡水源, 便得一山. 山有小口, 彷彿若有光. 便捨船, 從口入. 初極狹, 才通人. 復行數十步, 豁然開朗. 土地平曠, 屋舍儼然, 有良田美池桑竹之屬. 阡陌交通, 雞犬相聞. 其中往來種作, 男女衣着, 悉如外人. 黃髮垂草, 并怡然自樂. 見漁人, 乃大驚, 問所從來, 具答之, 便要還家, 設酒殺雞作食. 村中聞有此人, 咸來問訊. 自云先世避秦時亂, 率妻子邑人來此絕境, 不復出焉, 遂與外人間隔. 問今是何世, 乃不知有漢, 無論魏晉. 此人一一爲具言所聞, 皆歎曰. 餘人各復延至其家, 皆出酒食. 停數日, 辭去. 此中人語云: “不足爲外人道也.” 既出, 得甚船, 便扶向路, 處處誌之.



전체적으로 볼 때 사람이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향의 시공간(時空觀)들은 작자의 내면에 떠오르는 우주 이미지와 살아서는 경험할 수 없는 어떤 상징들로 가득 차 있기에 비현실적 묘사가 주류를 이룬다. 실제로 상상력은 인간의 욕망을 가로막는 그 무엇이든지 파괴한다.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넘나들은 물론 하늘과 땅 심지어 수중이나 지하세계까지 자유롭게 발길이 미치는 존재를 만들어 낸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사고와 개념이 모두 감각경험에 의해 인식되고 감각경험과 관련해서만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험들은 늘상 누가(인간) · 언제(시간) · 어디(공간) · 무엇(목적) · 어떤(방법) · 왜(이유)를 갖기 마련이다. 특히 어떤 사건이 발생하려면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인간이 동시에 실재해야 하므로 이들을 분리해서 이해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할지도 모른다.<sup>34)</sup> 그러나 이런 본격적 연구는 필자의 역량에서 벗어나므로 본고는 앞서 인용한 예증들을 살펴보는 선에서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

## 1. 시간으로서의 이상향

예로부터 상하사방(上下四方)의 공간을 '우(宇)'라 했고, 옛날에서 지

---

及郡下，詣太守，說如此。太守即遣人隨其往，尋向所誌，遂迷，不復得路。南陽 劉子驥，高尚士也。聞之，欣然規往。未果，尋病終。後遂無問津者。

34) 시간과 공간은 항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원근(遠近), 광협(廣狹) 등의 공간적 위치와 과거 · 미래 · 운동 · 정지 등 시간적인 상태가 결합됨으로써, 여러 가지의 시간적 형태가 생긴다. 어느 의미로는 시간은 공간을 예상한다고도 할 수 있으며, 또 공간적 체험이 부가됨으로써 시간은 보다 풍부하게 될 것이다. (이 종호, 〈James Joyce와 시간문제〉; 『문학과 시간』, 서울, 형설출판사, 1986. p.7.)

금까지의 시간을 '주(宙)'라 하였다.<sup>35)</sup> 따라서 이러한 시간과 공간 체계는 우주(宇宙)의 인식체계라고 할 수 있다. 우주를 상호 의존적인 천·지·인 3요소로 구성된 통일체로 보는 관념은 인간의 가치와 위치 및 고유한 기능이란 문제의 파악으로 천체 운행이나 생사과정 못지않게 철학자들의 주요 관심사였다.<sup>36)</sup> 그러나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은 지구상의 현재 시간이며 누구도 이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다. 인간의 삶과 죽음의 현상들은 모두 시간의 흐름과 관련되어 있다. 인간이 지구상에서 인지할 수 있는 어떤 사상(事象)도 시간의 지배를 벗어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없다.<sup>37)</sup> 따라서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그 사람의 인생관과 우주관을 결정하는 것이다.

시계 문자판에 나타나는 시간은 공간화·시각화·사회화된 시간이라 할 수 있지만,<sup>38)</sup> 일반적으로는 운동·지속·변화의 속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39)</sup> 그러나 시간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다분히 철학적 과제에 속한다. 이 같은 시간성에 대해 '시간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으면 알겠는데 물으니까 모르겠다'는 어거스틴(Augustine)의 말은 오늘날까지도 유명하다.<sup>40)</sup> 묻지 않을 때와 물을 때란 의식하지 않을 때와 의식할 때

---

35) 往古來今謂之宙 四方上下謂之宇.(「淮南子」,齊俗訓)

36) 마이클로이; 이 성규 역, 「古代中國人の 生死觀」, 서울, 지식산업사, 1998. p.189.

37) 박 기룡, <한국 선도설화 연구>, 대구대학교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7. p.126. 한편 이 논문은 'V. 선도설화의 시간과 공간 구조'를 통하여 시간과 공간의 관계를 명쾌하게 분석하여 설명하고 있어 많은 참고가 되었다.

38) 이종호, <전계 논문>, p.4.

39) 이러한 시간의 속성은 N.베다예프, I.칸트, H.베르그송도 지적한 바가 있다.(김규영, 「시간론」,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1980. 참조)

40) "What is time then? If no one asks of me, I know; if I wish to explain to him who asks, I know not." (Hands Meyerhoff, 「Time in Literatur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55. p.6. ;이 종호, <전계 논문>, p.4에서 재인용)

를 가리킨다. 시간을 의식하지 않을 때는 그 뜻을 알지만, 일단 의식하면 그 뜻을 알 수 없게 된다는 말이 역설이지만, 이러한 역설이 진리인 것은 최초로 시간의 개념을 자아의식의 현상으로 인식한 점 때문이다.<sup>41)</sup>

한편 물리적 시간 개념은 과학을 벗어난 사고의 시간 개념에 대한 일정한 답을 주지만, 과학 바깥의 사고에서 생각되는 시간 개념은 특별히 개인의 시간 순서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지하철을 타려는 사람들은 객관화 된 시간에 의지하지만, 자신이 경험한 주관적 시간에 의해 다음 열차가 도착할 것을 예측한다. 비슷하게 반복되는 많은 경험들은 이처럼 주관적 시간 간격에 대한 일정한 답을 제시한다. 이때 우리는 주관적이며 심리적인 시간과 시계에 의해 계측되는 객관적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들에게 있어서 심리적 시간은 다를 수 있는 것은, 동일한 시간이라도 어떤 이에게는 매우 지루하게 느껴지고 또는 매우 빠르게 지나갔다고 생각된다는 것이다.<sup>42)</sup> 허나 이러한 시간은 어디까지나 느낌에 의존한 것이지 계측되거나 객관화될 수 있는 시간은 아니다.

하지만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논의되는 시간에 관한 이해는 '시간은 돈다'는 순환적 시간관과 '시간은 간다'는 식의 직선적 시간관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sup>43)</sup> 전자는 원으로 상징될 수 있으며, 사물의 무궁

41) 김 인수,〈Time-scheme in The Rainbow and Women in Love〉;이 종호 외,「문학과 시간」, pp.229~230.

42) 체험을 배경으로 의식되는 내면시간은 개인마다 지속감이 다른 질적인 시간이다.(이 종호,〈전계 논문〉, p.4)

43) 일반적으로 전자는 동양적 시간관을, 후자는 서양적 시간관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인류의 지성과 과학을 지배해왔던 시간관은 분명히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는 직선적 시간관이다. 이것은 과거→현재→미래라는 시간관의 표명인데, 이런 상승적 시간관 속에는 진보주의, 종말론, 목적론 같은 것들이 자리잡고 있다.

한 반복을 가리킨다. 밤과 낮의 교체, 계절의 순환, 출생과 성장과 사망과 재생의 순환 등, 한마디로 자연과 인생에 대한 경험의 순환적 특성을 가리킨다. 후자는 수평선으로 상징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일정한 방향으로 시간이 흐른다는 관념이며, 시간을 통한 국가와 문명과 민족의 경과를 가리킨다. 따라서 그것은 역사의 발전과 진보에 대한 신념을 동기로 한다.<sup>44)</sup>

위의 두 가지 관점에 의하면, 유교는 순환적인 시간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AD 2000년은 경진(庚辰)인데 정확히 60년 후에 또다시 경진년을 맞는다. 이것을 사람의 경우에는 회갑(回甲) 또는 환갑(還甲)이라 하여 새로운 한평생이 시작되는 것으로 여긴다. 역사관도 다분히 과거 지향적인데, 공자는 자신의 학문이 새로운 것을 밝히고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말씀해 놓은 것을 말할 뿐이라 하였다.<sup>45)</sup> 그리고 유교가 비록 대동세계나 요순시대와 같은 이상향을 설정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영혼이나<sup>46)</sup> 사후세계에<sup>47)</sup>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이지만 이름을 남김으로서 영생을 꾀하고자 하였다. 그것의 방편은 '도적이거나 난적이 발생하지 않아 집집마다 대문을 닫

---

44) John Henry Raleigh의 '영국 소설에서 시간-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세 가지 기본적 범주'의 설명이다. (정 진동, 〈Fenimore Cooper의 시간-역사의식〉; 이 종호 외, 「문학과 시간」, pp.76~77에서 재인용.)

45) 述而不作 信而好古(「論語」述而)

46) 공자는 제자 계로가 귀신을 섬김에 대한 질문에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어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는가' (未能事人 焉能事鬼. 「論語」, 先進)라고 답하였고, '귀신을 공경하나 이를 멀리하라' (敬鬼神而遠之. 「論語」, 雍也)고 대답했으며, 문인의 입을 빌리면 '괴상하고 무력이 횡행하며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야기나 귀신에 관한 것은 말하지 않았다' (不語怪力亂神. 「論語」, 述而)고 한다.

47) 죽음에 대해서도, '아직 삶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 수 있겠는가' 하였다. (未知生 焉知死. 「論語」, 先進)

을 필요조차 없는 세상'을 구현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성인으로 추앙 받아 이름이 청사에 빛나고 영원토록 제사를<sup>48)</sup> 받게 됨으로 영생한다고 믿은 것이다.<sup>49)</sup> 그리고 구체적 진술은 없지만 노인, 장년, 어린이 등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런 나이의 구별은 시간의 흐름과 직결되므로 왜곡된 시간관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불교의 시간관은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금강경」 구절로 대표될 수 있다.<sup>50)</sup> 이것은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으며 미래도 없다는 시간관의 표명이므로, 과거니 현재니 미래니 하는 시간 개념은 실체가 아니고 서로간의 관계 속에서 편의적으로 이름지어진 것으로 본다.<sup>51)</sup> 앞서 인용한 「불설무

48) 제사의 기원에 대해서는 하늘의 뜻을 물어 복을 받으려는 의미에서 천제(天際)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되었는데, 시간이 지나 죽은 조상들이 하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후손이 제사를 지내면 조상의 혼백은 신주를 거쳐서 삼아 사후에도 얼마간 안정된 삶을 유지하며 복을 준다고 여겼다. 이처럼 유교적 전통은 삶과 죽음을 인위적으로 분리하여 이해했다기보다 동일한 삶의 양태로 인식하였다. 가령 종묘(宗廟)를 국가 이념의 정신적 본향으로 여겼던 것이나, 일반에서 사당에 신주를 모셔놓고 아침저녁으로 배알한 것이 그 예이다.

49) 우리 나라의 경우 문묘에 배향(配享)되는 것을 유교를 받드는 자의 최고의 영예로 여겼다. 이들은 공자와 함께 영원토록 제사를 받는다고 믿는데, 이것은 영생의 한 방편인 것이다.

50) 過去心 不可得 現在心 不可得 未來心 不可得(「金剛經」,一體同觀分,第十八.)

51) 김호성, <불교의 시간관>: 「진리의 벗이 되어」 제47호, 서울, 성천문화재단, 2000, p.22.

52) 윤회란 한마디로 내 삶의 행위가 행위 자체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업(業)이 되어 시간 속에서 연속된다는 것이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요, 그것은 또 하나의 윤회의 삶을 의미한다. 이 생사의 끊임없는 고리를 이어가는 업은 나의 삶의 도덕적인 행위다. 선업(善業)은 선과(善果)를 낳고, 악업(惡業)은 악과(惡果)를 낳는다. 그러나 윤회의 주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업'이고 '행위'다. 윤회는 모든 존재의 기반이다. 윤회를 전제로 하지 않는 존재를

량수경」은 이를 극대화하여 ‘춘하추동의 사계절이 없다’고 함으로써 시간의 추이나 존재 개념 자체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그러나 윤회(輪回)라는 개념을<sup>53)</sup> 통해 육신의 죽음은 만물의 소멸이 아니라 다른 연속성 안에 놓여 있음을 강조하는 것은 다분히 순환적 시간관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도교는 시간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오직 자연계의 사물 형태인 물상(物象)<sup>54)</sup>만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때 물상을 드러내는 존재 형식을 시간으로 이해하는데, 시간과 공간은 물상 곧 존재자의 존재형식이 되는 셈이다. 이런 존재형식이 없다면 존재자가 파악되지 않고,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시간이나 공간도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우리 앞에 마주선 물상을 존재자라 할 때, 노장에서 시간과 공간은 바로 그 존재자의 존재형식으로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간은 실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의식현상으로 파악된다.<sup>55)</sup> 더구나 존재자의 영육(靈肉) 불사(不死)를 위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신선(神仙)을 표방하는 것은 이러한 도교의 시간관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교의 영향을 받은 대다수의 이상향 설정은 이런 사실을 더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주인공들은 선경에서 단지 며칠을 지내다가 되돌아오지만 그 동안에 모든 것이 변하고 달라져 있다.<sup>56)</sup> 이

---

생각할 수도 없고, 윤회의 전제가 없는 불교는 생각할 수도 없다. 윤회는 이론이기 전에 하나의 사실이고, 구원이기 전에 하나의 현실이다. 윤회는 모든 생명의 생사의 법칙이요, 순환의 대세다. 불교가 윤회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인도라는 문화환경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윤회의 설정이 없이는 인간 삶의 도덕성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선업에 대한 요구가 근원적으로 성립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다.(김용옥, 「전계서」, pp.171~173.)

53) 시간과 공간에 의해 드러난 실존적 존재자를 의미한다.

54) 송 향용, <도가철학에 있어서의 시간>: 「진리의 벗이 되어」, p.23.

것은 비록 시간의 속도가 다르기는 하지만 이상향과 인간세상에서 동시적으로 흘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선계에서의 시간은 인간세상의 시간과 '다르다' 기보다 '훨씬 느리게 흐른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할 것이다.<sup>56)</sup> 이는 시간의 흐름을 늦춤으로써 인간의 수명을 늘일 수 있다는 불사의 사상을 표현한 것인데, 불로장생을<sup>57)</sup> 회구하는 인간 염원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 의식 속 깊이 자리잡고 있는 시간의 유한성과 흐르는 물과 같은 그 불가피성이란 특징이 시간과는 대치되는 영원(永遠)이란 차원을 우리에게 간절히 희망하게 하였다.<sup>58)</sup> 하지만 모든 존재는 시간 안에서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한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처럼 '우리는 결코 동일한 강을 두 번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만일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면 굳이 영원을 회구하지 않았을 것이란 역설이 성립된다.

## 2. 공간으로서의 이상향

인간 개개인의 감각 경험에는 공간적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듯 하지만, 사실상 현실 이외의 공간은 모두 관념 속의 공간이다. 우리

55) 가령 「청구야담」에 보이는 식단구유랑표해(識丹邱劉郎漂海)의 예를 들면; 미역을 따려고 바다에 나간 주인공 유 동지는 갑자기 불어닥친 서북풍을 만나 표류하다가 신선들의 섬인 단구(丹邱)에 상륙한다. 여기서 단지 5일을 머물고 집으로 돌아왔을 뿐인데 부모와 처자식은 다 죽고 손자가 집주인이 되어 있었다. 결국 이상향에서의 하루는 인간세상에서의 10년인 셈으로써 그 동안 50년 세월이 흘렀다는 말이다.

56) 장 양수, <전계 논문>. p.17.

57)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사람의 생명은 유한할 뿐이다. 사람의 수명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장자도 '사람의 상수는 100세요 중수는 80이고 하수는 60이라' 하였다. (人上壽百歲 中壽八十 下壽六十. 「莊子」, 盜)

58) 이 종호, <전계 논문>. pp.20~21.

가 직·간접적 경험을 통해 '어디' 즉 공간(space)의 의미와 만나는 것처럼, 이상향에도 다양한 공간 형태가 등장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살아서 경험하기 어려운 상징적 이미지들로 채워져 있다. 하지만 이런 공간구조를 살펴보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정하게 자리잡고 있는 우주적 공간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작업이 될 것이다.

공간은 시간과 다른 특수성을 갖는다. 우선 점·선·면이라는 삼차원적 공간은 추상화된 물리적 공간이지만 사회적 공간은 구체적 삶의 맥락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나 장소 귀속적 특성을 지닌다. 이를 간과하고 단지 추상적 공간으로만 공간을 파악한다면 단면적 이해에 그치고 말 것이다. 사람은 필연적으로 사회라는<sup>59)</sup> 공간 구성을 이루고 살아가기 때문에, 본고는 물리적 공간보다는 사회적 공간 개념에서 이를 논의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고도의 사회 또는 현실적인 존재들의 결합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공의 흐름 안에서 불변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양한 변화 속에서 부분적 동일성을 유지해 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회는 과거의 제도가 해결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에 주기적으로 봉착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사회는 새로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기 보다 서서히 변모하려는 속성을 지닌다. 따라서 그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구성원 스스로를 재창조해 나가야만 한다. 이런 의미의 사회적 공간들은 삼교의 이상향 설정에 따라 극히 상이한 유형을 띠고 나타난다.

먼저 유교는 앞서 인용한 것처럼, '자기 부모만 부모로 여기지 않고

---

59) 특히 사람이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도시(국가)는 인공적 공간 점유의 극치를 보여 준다.



자기 자식만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다. 노인으로 하여금 편안한 여생을 보내게 하고, 장년들은 일할 여건을 보장받으며, 어린이는 길러주는 이가 있고, 과부나 홀아비는 보살핌을 받으며, 병든 자는 모두 부양을 받는다. 남자와 여자는 각기 할 일이 있지만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므로 개인적인 축재는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사회상의 묘사는 개인의 필요나 목적을 중시하는 현대사회의 분화된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모두의 역할이 분담되어 공리(公利)와 사회적 필요를 위해 노동을 하고 공의(公義)를 위하므로 분쟁도 없다. 노인들은 젊은 시절 봉사의 대가로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고, 병약자나 구휼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 과부, 홀아비들은 보살핌을 받는다. 여기에다가 ‘어진 사람을 뽑고 능력 있는 사람에겐 관직을 주고 신의와 화목을 가르치면’ 그 사회가 유지 발전된다는 것이다. 이런 사회 공간의 설정은 마치 복지사회의 이상을 실현한 듯 지극히 제도화되고 현실적인 공간 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불교는 사뭇 다른 면모를 갖는다. ‘법장 보살이 성불하여 현재 서방에 있는데, 그곳은 십만 억찰 떨어져 있다. 땅은 자연의 칠보·금·은·산호·호박·마노의 합성으로 이루어졌고 규모는 넓어 끝을 알 수 없다. 찬란하고 미묘한 빛을 발하고 기이한 아름다움이 가득하며, 수미산 및 금강원 등 여러 산들이 일체 없고 바다도 없다’고 묘사된다. 특히 이상향인 그곳은 인간세계와 ‘십만 억찰’이나 떨어져 있다고 표현된다. 이것은 우리가 실존하는 지구 외에 어떤 사회적 공간이 구성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산이나 바다도 일체 없다’ 하여 그 자체가 상상의 극대화임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공간 구성은 구체적 삶의 모습을 제시하지 못한 채 마치 경치를 감상하듯 묘사되고 있다.

도교는 위의 두 가지 경우와 또 다른 공간 설정을 보여 준다. ‘뽕나무와 대나무가 많았으며 도로가 교차하고 개와 닭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 사이를 왕래하며 농사짓는 남녀의 의복은 바깥세상의 그것과 똑같았

다.’고 했다. 이처럼 그 세계는 외부세계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 세계에 도달하기까지의 정황들은 주인공이 살던 현실세계와 강렬한 대비를 보인다. 대개 협소한 동굴(洞窟)을<sup>60)</sup> 어렵사리 통과하자 탁 트인 넓은 공간이 나타났다는 전형적인 설정을 보이는 것이 그것이다. 주인공은 분명히 자기가 살던 곳으로부터 물길을 따라 배를 저어가다가 그곳을 우연히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곳이다. 이처럼 인간세상과 동떨어진 곳이라는 설정의 배경은 괴로운 현실을 벗어나 버리고 싶은 꿈을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닭이나 개 등의 가축들과 풍족한 먹거리가 있는 곳이며 의복도 바깥세상과 같다는 설정은, 험벗고 굶주림에 시달렸던 옛사람들이 의식(衣食)이 풍족한 세상을 소망했다는 증거가 된다. 사실상 일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무엇보다도 질병과 굶주림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노란 더벅머리를 늘어뜨리고 조용히 스스로 즐기는 것 같았다’고 묘사했는데, 노동력이 없는 어린이나 노인들이 어떤 생활을 하느냐는 것이 아마로 한 사회가 진정으로 풍족한가를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그곳은 종종 궁벽한 산이나<sup>61)</sup> 외딴 섬이 등장하기도 하는데,<sup>62)</sup> 이

60) 동굴 등은 통과례(通過儀禮, Passage Rites)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정 재서, 「불사의 신화와 사상」, 서울, 민음사, 1994. p.150.) 그리고 대부분의 이상향 설정은 산중(山中)이나 해도(海島)에 위치하기에 반드시 절벽, 대해(大海)같은 장애물을 통과해야만 도달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61) 산은 천계와의 통로, 모든 영혼의 귀속지요 신들의 거소이며 인간이 이상하는 낙원으로 보아왔다. (정재서, <산해경 신화와 신선설화>: 「도교와 한국사상」, 범양사출판부, 서울, 1987, p.256) 그리고 이른바 난리를 피해 생명을 보전할 수 있는 곳으로 알려진 십승지(十勝地)도 그런 곳이다. 십승지란 ‘풍기차암계촌’, 협천가야산남측만수동’, 공주유구마곡간, 예천금당동동북측, 영월동측상류, 단양영춘’ 등으로 문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최 창조, 「한국의 풍수사상」, 서울, 민음사, 1993, 11 판, p.304.) 그리고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산악은 실제적 측면으로든 종교적인 측면으로든 숭배의 대상이 아닐 수 없었다. 단군신화를 비롯한 대부분의 건국신화가 장

는 동·서양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sup>62)</sup> 이처럼 인간 세상이 아닌 다른 공간 설정은 영혼 불멸을 믿는 인간의 심적 태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증거로서 주인공들이 이상향을 다시 찾아가려 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만다는 진술은 그것이 꿈과 소망일 뿐이라는 사실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말하자면 이상향에 대해 이야기를 하거나 듣는 동안만이라도 현실의 고통과 시름을 잊어 보려고 했던 심리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sup>64)</sup>

그러나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공간으로서의 이상향들은 향촌 정도의 소규모 공간에서나 실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오랜 세월 동안 현실개혁의 모형으로서 이상향들이 주목받아 왔지만, 그것의 일반모형으로 작용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보인다.

### 3. 인간으로서의 이상향

인간은 현실을 살면서도 존재의 유한성과 현실 불만이라는 욕구를 충

---

소의 배경을 산 정상으로 하는 것처럼, 산은 하늘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하늘 세계로 가는 통로로 인식되었다. 산해경의 예를 들면, '무함국은 여축의 북쪽에 있다. 무당들이 오른손에는 푸른 뱀을, 왼손에는 붉은 뱀을 쥐고 등보산에 있는데, 이 산은 여러 무당들이 하늘로 오르내리는 곳'으로 표현되어 있다. (『山海經』, 海外西經)

62)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봉래(蓬萊)인데, 이것은 그후 이상향의 대명사가 되었고, 일본의 신화에도 '호라이'란 이름으로 나온다. (마이클로이; 이 성규 역, 『전계서』, p.44.) 이것의 구체적인 예는 산해경에 보인다. '봉래산이 바다 한가운데에 있다' 혹은 '열고야가 바다 한가운데 섬 속에 있다' (『山海經』, 海內北經)

63) 플라톤이나 모어가 꿈꾸었던 이상향도 고립된 섬이었고, 「열자」 탕문편에 보이는 이상향이나 「홍길동전」에서 길동이 말년에 들어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울도국도 섬이다. 이승에서의 삶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수평선 너머 어딘가에 고통 없는 세계가 있을 것이란 상상은 증폭되기 마련이다. 이런 의미에서 '섬'은 꺾박받은 민중들에게 이상향의 모델이 되기에 충분하였다.

64) 장 양수, 〈전계 논문〉 p.17~18.

족하기 위한 방편으로 현실과 대립되는 상상의 세계를 설정하고, 이런 세계를 통해 가상의 만족을 얻으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이런 면을 충분히 감안하는 가운데서도 인간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이해할 것인가는 삶의 핵심적인 문제에 속한다.<sup>65)</sup> 이것은 모든 세계와 역사의 주체가 무엇보다도 사람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삼교에서는 공히 인간이 자신의 위치를 명확히 이해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가를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여 나름대로 이상적이고도 바람직한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다.

유교에서는 고민하고 걱정하는 인간, 현실을 개탄하며 새로운 것을 찾아 해매는 인간인 군자(君子)가<sup>66)</sup>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나타난다. 또한 만물의 영장으로서 인격과 품성을 도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 세밀하게 살핀다면, 공자·맹자·순자의 표현이 각각 차이를 보이지만 이들에게서 성인과 군자는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공자는 찾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찾으려 했고, 맹자는 왕도정치가 뿌리내릴 수 없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난세를 향해 웅변을 터뜨렸던 것이다.<sup>67)</sup> 그리고 '사람이 도를 넓히는 것이지,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것이 아니다' 라고<sup>68)</sup> 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

65) 현실적 존재는 현실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최소의 단위라고 할 수 있다. 공기 중에 떠도는 작은 먼지라도 현실적 존재의 구성 요소로 작용한다. 모든 현실적 존재는 우주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다. 가령, 담배연기도 우주의 대기와 결이 닿아있는 것이다. 또한 한 송이 꽃이 피는 것도 우주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출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지만, 그것들이 인간과 연관되지 못할 때는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66) 군자란 수기안인(修己安人)으로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인을 이루어 평안케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학문과 인격을 겸비한 사람의 대명사로 쓰인다. 성인, 현인 등도 같은 맥락이다.

67) 송항용, 「동양인의 철학적 사고와 그 삶의 세계」, 서울, 명문당, 1991. p.37.

유교적 인간관은 윤리·도덕적 인간관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고대 씨족사회에 기원이 있으므로 혈연을 기반으로 한 종법적(宗法的) 윤리다. 특히 부모와 가족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효제(孝悌)가 핵심인데, '효제는 참으로 인을 행하는 근본이구나!' 하는 표현으로도 잘 나타난다.<sup>68)</sup> 이러한 효제의 확산이 인의로 나타나 모든 유교 인간관의 근간을 이루게 된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어진 사람을 지도자로 뽑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관직을 주고 신의와 화목을 가르치면 자기 부모만 부모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식만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로도 확인된다. 이는 결국 구성원 개개인의 인격의 도야를 통해 펼쳐질 이상세계의 한 단면을 그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sup>69)</sup>

불교에서는 인생의 모든 것이나 나아가 산다는 것 자체를 고통으로 인식하여 이것이 인생의 본질이며 참모습이라고 단언한다. 따라서 여러 가지 경전이나 수행도 인간에게 주어진 현실적 고통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인간의 심성은 본래 불성(佛性)이 있어 청정하지만 무지나 탐욕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고 한다. 따라서 일체의 진리를 깨달아 부처(佛陀:Budda)가 된 고타마 싯달타(Gautama Siddharth:BC 563~483)처럼 4법인과<sup>70)</sup> 4성제의<sup>71)</sup> 지혜와 자비

68) 人能弘道 非道弘人. (「論語」, 衛靈公)

69) 孝悌也者 其爲仁之本與. (「論語」, 學而)

70) 공자는 인간다움의 회복을 통해 사회를 바로잡아 보려는 열정이 있었고, 그 열정을 교육을 통해 열매 맺는 것으로 상징된다. 도처에서 '배움'을 강조한 그의 논조가 발견되는데 그는 가르치고 배우는 방법만이 인간다움을 실현할 수 있는 길로 보았던 것이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이해관계를 따지기보다, 오직 옳고 그름에 주목한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행위의 인과응보보다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하는 당위를 강조했던 것이다.

71) 諸行無常, 諸法無我, 涅槃寂靜, 一切皆苦를 四法印이라 한다.

72) 苦·集·滅·道를 四聖諦라 한다.

를 누리는 자를 이상적 인간상으로 여긴다.<sup>73)</sup> 인격 완성의 경지에는 약간의 견해차가 있으나,<sup>74)</sup> 현실적 고뇌를 극복한 인격들이 사는 세계가 곧 안락(安樂)이며 정토로 제시된다. '여기에 사는 부처의 신통력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보이며, 지옥과 아귀, 축생들이 갖가지 고통을 받는 것도 없다.'고 한 표현을 볼 때, 표면적으로는 해탈자의 세계를 말한 것 같지만 사실은 현실적 고통이 없는 피안의 세계를 꿈꾼 것이다.

도교에서는 도인(道人)이<sup>75)</sup> 상정되고 대자연의 흐름에 인생을 맡기는 것을 이상으로 여기지만, 일차적 목표는 무엇보다도 오래 사는 것이었고, 불사(不死)의 신선은 궁극적 지향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세속적인 생활을 초월하고 만물의 원리인 도(道)를 따라 자연스럽게 처신할 수 있는 덕성 함양을 주장하였다. 인간을 자연 리듬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는 자연의 창조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국 인위(人爲)를 버리고 무위(無爲)로<sup>76)</sup> 돌아가는 자연주의적 인간관을 지향했다는

---

73) 이는 '보살'로 통칭되는데,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여 자비를 구현한다.

74) 일반적으로 소승(小乘)이 고도의 윤리적(지적) 수준을 지닌 인격을 지향한다면, 대승(大乘)은 깨달음의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여 중생을 제도하는 인격을 지향한다. 그러나 이런 일반론에 대해 '우리가 흔히 불교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통시적으로나 공시적으로나, 모두 소승이니 대승이니 하는 개념들을 무비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소승·대승이라는 개념이야말로 실로 불교를 이해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일대 편견이라 아니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보다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하시오. (김용옥, 「전계서」, pp.83-99.)

75) 이것은 무위자연을 체득한 도교의 인간상을 통칭한 말인데, 개별적으로는 至神, 神人, 真人, 仙人 등이 제시되고 있다.

76) 무위(無爲)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불위(不爲)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목적·무의지적인 도의 작용, 즉 대자연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는 것이며 그것을 따르는 것이다. 성인의 행위는 바로 이런 것이다. 노자가 말하는 '무위이무불위(無爲而無不爲)'는 이같이 필연과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인식이다. 따라서 무

것을 말해 준다. 그래서 이상향의 사람들은 '진(秦)나라의 전란을 피하여 왔지만 한(漢), 위(魏), 진(晉)이라는 시대 변천에 아랑곳하지 않고 모두가 웃는 얼굴로 살며 평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묘사된 것이다.<sup>77)</sup>

그러나 이상향의 등장 인물들이 비록 전형적 인물로 구성되었지만 참으로 사람됨과는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베를 짜지 않아도 옷을 해 입고, 파종이나 추수를 하지 않아도 밥을 먹는데', 사실상 이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의 생산력을 보유한 사회는 일찍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sup>78)</sup> 때때로 '날아다니기도 하고, 바다 속에 들어가 생활하기도 하는데', 이처럼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이상과 현실을 넘나들고자 했던 것은 인류의 오랜 소망이었다.<sup>79)</sup> 그러나 사람은 철저히 그만큼 시공간의 제약을 받도록 창조되었다.<sup>80)</sup>

---

위란 필연에 대한 인식도 포함하며, 이런 점에서 무위자연(無爲自然)이라고 말하는 것이다.(조민환, <노자와 장자의 사상>; 박 정호 편「지식의 세계」2, 서울, 동녘, 1998. pp.388~389.)

77) 근대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보편적 역사를 떠올린다면 전쟁과 빈부귀천이 없는 세 계야말로 이상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사람됨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여러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안빈낙도(安貧樂道)를 강조했던 유교나, 물상에 구애됨 없이 자유로운 인간정신을 꿈꿨던 도교 내지는 불교는 인간 내면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상향 논의의 핵심은 아무래도 '사람됨'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78) 진 정영·임 기담; 이 성규 역, 「전계서」. pp.11-12.

79) 이런 관념들은 여러 사상이 첨가되면서 점차 천사숭배 사상으로 발전하였다. 천사는 한마디로 흠 없고, 순결하며, 선량한 인격체로 묘사된다. 또한 일체의 시·공간 의 제약도 없고 영생하며 하나님을 방불케 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이것은 사람이 '숨이 코에 붙은 존재'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어떤 형태로든 초인(超人)을 꿈꾼 것인데, 이런 시도들은 모두 천사 숭배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사상은 우리의 사고 깊숙한 곳에 숨겨 있거나 자리잡고 있다.

80) 예수는 자기 자신으로서 이를 명백히 하여 자기를 시험하던 사탄을 '부리는 영'이라는 본래의 위치에 서게 하였다. 사람은 결코 천사를 경배하거나 사모할 자가 아니

주지하다시피 인류는 여러 가지 정치 형태를 통하여 평화롭고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고자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그 사회의 주체요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인격이 거둬나지 않고는 절대로 그런 세계는 구현되지 못한다. 동물들이 모여 사는 세계가 동물의 왕국인 것처럼, 구성원 자신들이 변화된 인격인 집합이야말로 이상향의 실체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오도된 나머지 인류 역사상 새로운 사회의 새로운 인간상 형성이란 이름 하에 전개된 인간개조운동이 인간성 자체를 말살하는 조직적인 폭력과 강제를 수반한 예도 적지 않았음<sup>81)</sup> 상기할 필요가 있다.

#### IV. 결론

이상의 논의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이상향에서도 시간의 흐름이 감지되지만, 그것은 우리가 사실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설정이 대부분이다. 이는 벗어날 수 없는 시간의 한계성을 벗어나 보려고 했던 욕구의 표현으로 보인다.

둘째; 나름대로 사회 공간을 설정하고 있지만 대체로 인간 세상과 막혀 있거나 동떨어진 세계로 묘사된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현실적인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회피해 보려고 한심적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라 여겨진다.

---

다. 마찬가지로 돌로 떡을 만들거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거나 사탄에게 절할 자가 아니란 말이다. 오직 그 심령이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표현해 낼 존재이다. 따라서 능력자인 사탄의 형상이 아니라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어린양의 승리로서 사람의 자리와 위치를 온전하게 회복하신 예수야말로 우리의 참된 본이며 산 소망인 것이다.

81) 진정염·임기담, 「전계서」, p.27.



셋째; 이상향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신선, 보살, 군자 등 매우 전형적인 인물들로 설정되어 있지만, 이들에 의해 야기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제시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이 또한 이상향 이야기들이 인간 상상력의 극대화임을 자인하는 요소라 생각된다.

결국 시간·공간·인간이라는 세 가지 관점으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상향의 전모가 인간의 상상력의 산물 즉, 가공의 세계라는 사실을 한층 더 명확히 인식할 뿐이다. 그러나 이것이 ‘허구’며, ‘조작’된 것임을 알면서도 오늘과 현재에 불만족한 사람들은 여전히 유토피아를 그리면서 현실 문제에 주목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유토피아와 관련한 대부분의 사상이나 저작들이 분배나 생산의 문제를 공통적으로 다루는 것으로도 알 수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인류는 여러 가지 정치 형태를 통하여 평화롭고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고자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그런 이상 사회의 주체요 구성원인 사람이 인격적으로 변화되지 않고는 그런 세계의 구현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사회주의의 발현과 퇴보에서 발견할 수 있다. 사회주의는 인간이 나타내고자 했던 이상향의 절정이며, 가장 명시적이고 급진적인 형식이였다.<sup>82)</sup> 따라서 거창한 이념을 내걸고 시작했지만, 정작 그에 합당한 ‘사회주의적 인간’이 없어서 실패하고 말았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상향 논의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제도의 개혁이나 완벽한 사회 구조 또는 물질의 공정한 분배 등 외적인 조건들의 충족을 통해 이상향을 이룩하려는 사상의 결집이라 할 수 있다. 아나톨 프랑스가 ‘유토피아는 모든 진보의 원리이며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시도’라고 하여 매우 적극적인 평가를 했다지만,<sup>83)</sup> 보다 본질

82) 김 원, <미래를 향한 허상 또는 희망>, 『중대신문』2001. 11. 26. p.7.

83) 김영한, 『전개서』. p.9.

적인 것은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라 그 사회 구성원의 자질이나 인격의 어떠함에 따라 구체적인 모습이 결정된다는 사실이다.<sup>84)</sup> 허나 앞서 살펴본 삼교의 이상향에서는 한결같이 이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인생의 참된 본이요 뜻대이신 예수께서 아버지로 인하여 사셨던 것처럼,<sup>85)</sup> 주님 자신을<sup>86)</sup> 온전히 누림으로서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이상향의 참된 실재라 하겠다.

---

84) 예를 들어, 민주주의 제도를 택했다고 해서 모든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국민들의 민도(民度)에 따라 정착되기도 하고 도리어 실패하기도 한다. 따라서 그 사회 구성원의 자질, 됴됨이, 수준, 정도가 사회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85) 「요한복음」 6장 57절

86) 소위 믿음 안에 있다는 사람들도 '예수'보다 '예수에 관한 것'들, 예컨대 부활절이나 성탄절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물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디모데전서 2장 5절)' 더 깊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다. '예수에 관한 것'과 '예수 자신'은 실로 얼마나 다른가! 사람됨의 구체적인 표현은 결국 인격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이때의 인격은 도덕적 덕성 함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던' 바로 그 사람의 자리 회복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히브리서 3장 1절의 권고는 틀림없이 '예수 자신'에 관한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 참고문헌

### · 원전

「禮記」, 「山海經」, 「列子」, 「墨子」, 「老子」, 「三國史記」

### · 논문

- 김인수, 〈Time-scheme in The Rainbow and Women in Love〉; 이 종호 외, 「문학과 시간」, 형설출판사, 1986.
- 김호성, 〈불교의 시간관〉; 「진리의 벗이 되어」 제47호, 서울, 성천문화재단, 2000.
- 박기룡, 〈한국 선도설화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7.
- 송항용, 〈한국 도교·도가사상의 특질〉; 조명기 외, 「한국사상의 심층」, 우석, 1994.
- 〈도가철학에 있어서의 시간〉; 「진리의 벗이 되어」 제47호, 서울, 성천문화재단, 2000.
- 이종은, 〈한국 소설상의 도교사상 연구〉; 한국도교사상연구회 편, 「도교와 한국사상」, 범양사출판부, 1987.
- 이종호, 〈James Joyce와 시간문제〉; 이 종호 외, 「문학과 시간」, 형설출판사, 1986.
- 장양수, 〈한국 이상향 설화에 나타난 도교사상〉; 「인문연구논집」 제4집, 동의대학교출판부, 1999.
- 장윤수, 〈기독교세계관의 입장에서 바라본 기론〉, 「통합연구」 32호, 통합연구학회, 1997.
- 정병조, 〈반유토피아 소설〉; 「명강의 노트」, 서울, 한국문학사, 1981.
- 정재서, 〈산해경 신화와 신선설화〉, 「도교와 한국사상」, 범양사출판부, 1987.
- 정진농, 〈Fenimore Cooper의 시간-역사의식〉; 이 종호 외, 「문학과 시간」, 형설출판사, 1986.
- 조민환, 〈노자와 장자의 사상〉; 박정호 편 「지식의 세계」 2, 동녘, 1998.
- 홍윤식, 〈韓國史上에 있어서 彌勒信仰과 그 사상적 구조〉; 한국사상사학회 편, 「미륵사상의 본질과 전개」, 서문문화사, 1994.

### · 저서

Michael Loewe; 이성규 역, 「古代中國人の生死觀」, 지식산업사, 1998.

- 김규영, 「시간론」, 서강대학교출판부, 1980.  
김상현 외, 「불국사」, 대원사, 1992.  
김영한, 「르네상스의 유토피아 사상」, 탐구당, 1983.  
김용옥, 「금강경 강해」, 통나무, 1999.  
백련선서간행회 편, 「영원한 자유」, 장경각, 불기2537.  
서경호, 「산해경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송항용, 「동양인의 철학적 사고와 그 삶의 세계」, 명문당, 1991.  
이강수, 「도가사상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9.  
정재서, 「불사의 신화와 사상」, 민음사, 1994.  
진정엽·임기담; 이성규 역, 「중국의 유토피아 사상」, 지식산업사, 1999.  
차주환, 「한국도교사상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3.  
최창조,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1993.  
한국도교사상연구회 편, 「도교와 한국사상」, 범양사출판부, 1987.

---

**김지엽** 교사는 1961년 강원도 원주 생으로 강원대학교 한문교육과를 졸업하고, 영남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는 공저 「기독교세계관으로 조명한 서편제」(CUP, 1993)가 있고, 「南冥 曹植의 賦文學 研究」(碩士), 「基督教 世界觀으로 照明한 斥邪 論音」(통합연구학회, 1992), 「聖經으로 본 孝道의 實在」(통합연구학회, 1993), 「열린교육 內實化를 위한 前提」(교육경북117호, 1997) 등의 논문이 있다. 현재 흥해공업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다.